

자비나눔 50년 '제주 봉사왕' ...

김문자 회장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문자 회장은 ... △1992년부터 98년까지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초대 단장 및 제 1·2회 회장 역임 △2011~현재=조계종 제주 삼광사 신도회장 △2005~현재=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2009~현재=제주도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2010~현재=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수상경력=대표적으로는 2000년 불대대상(사회봉사부문), 2003년 제24회 만덕봉사상을 꼽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제주도에 최초로 제 1회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에 등재됐다.

故 임덕희 보살 있는 제주 불교계 '대모' 제주는 여인의 섬이다. '여자가 많다'는 낭만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주 여성들의 존재는 척박한 삶을 일궈야 했던 일상의 땅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단한 존재였다.

제주 여성들은 그 고초를 딛고 강인해진 것일까. 조선시대 흥년에 전 재산을 털어 제주도민을 먹여살린 거상 김만덕이 강인함의 대표적 상징이다. 불교계에도 있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훼손됐던 제주불교를 200년 만에 다시 일으킨 제주불교의 중흥조 안봉래관 스님도 여성이다. 불교의 불모지였던 제주 땅에 100여 년 만에 뿌리 깊은 부처님 법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자 곁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소임을 다했던 여성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故 대원각 보살,故 임덕희 보살 등을 제주불자들이 '제주불교계 대모(大母)'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떠났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살아 숨쉬며 지금에도 면면히 이어진다. 그 명맥을 잇는 김문자(76·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장) 대표살에 의해서다. 50여년 동안 봉사행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회장은 제주불자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봉사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봉사를 하다보니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봉사를 통해 타인이 즐겁고 행복해 하면 그 기쁨과 보람으로 내 자신이 몇 배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제주도 보시바라미의 대부인 김 회장은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어려운 시절인 1950년대, 김 회장은 교회서 나눠준 맛난 눈꽃탕 탕 때문에 인연이 돼 교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 계속해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던 김 회장은 성탄절이면 교회서 하는 연극 주인공인 '성모

마리아' 역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교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였다.

"여자친구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고교 졸업 후 교회 친구들이 하나 둘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열정도 자연스럽게 식더군요."

그 무렵 인생 도반인 남편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다. 더욱이 홀로된 몸으로 외동아들인 남편을 키우던 시어머니의 불심은 남달랐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1924년 현 제주시 중심에 있는 관음사 포교당을 시작으로, 1948년 4·3사건으로 전소된 관음사 중건불사에 앞장설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어릴적부터 교회에 나간 김 회장이었지만 사찰 문화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어릴적 친정어머니를 따라 자주 사찰을 찾았던 기억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회에 빠진 딸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지켜보면서도 마지막 노선인 '세례' 만큼은 받지 않길 바라셨거든요."

적십자 제주지사 임회가 봉사 시발점

김 회장도 그 마음을 알았을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초심자로서 기도 중심으로 신행 생활을 해오던 김 회장이 봉사에 눈을 뜨는 것은 30세인 1968년 경이다. 김 회장은 지인 소개로 적십자제주지사 부녀봉사회원으로 입회한다. 무슨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열성적인 성격 탓에 봉사행도 남들보다 열심히 임했다. 그래서였을까. 입회한지 4년 만에 적십자 부녀봉사회 11대 회장을 맡은 후 15대까지 연이어 역임했다.

김 회장은 "들어져 보면 그 시절에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열정 덕에 지금까지 수많은 감투(?)를 맡을 수밖에 없었구요(웃음). 그래도 주변서 계속 회장을 맡으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독주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몇 년 후 회원들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시 손잡고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워낙 강해 꺾을 수가 없었지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적십자 제주지사 여성봉사특별 자문위원을 맡아 후배들과 지역 봉사활동에 진력한다. 남을 위한 일만 해오던 김 회장에게도 시련이 닳았다. 적십자 부녀봉사회 회장 재직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던 시어머니였다. 김 회장은 기꺼이 거동이 불편했던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렸다.

김 회장은 "집안일엔 소홀하면서, 밖에서만 남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는 더욱 듣기 싫었다"며 "특히 커가는 자식들에게 바로 산교육이었기에 더욱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회고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김 회장에 대한 평판은 제주 불교계에서도 자자했다. 그러던중 김 회장은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행을 펼칠 기회를 맞는다. 제주도의 유일한 교구본사인 관음사에서 제주불교계의 중심축이 될 봉사단체가 필요했는데, 그 책임자를 김 회장이자라고 생각했다.

1992년 제주불교사회 봉사회장 취임

1992년 11월 도내 최초의 불교봉사단체인 '제주

불교사회봉사회'는 초대회장으로 김 문자 회장을 추대하면서 창립식을 가졌다. 김 회장은 봉사회 활동을 불교계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적십자 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해 폭을 넓혔다. 그때까지 봉사라야 기껏 복지시설에 물품전달하는 정도에 머물던 불자들의 봉사 활동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한다. 김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중 보내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욕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놨다.

"자원봉사자들은 비록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한센병(나병) 환자들의 목욕 봉사 만큼은 무척 꺼렸어요. 당시만 해도 큰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을 일일이 설득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광명의 정신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면서 설득하자 한 두명씩 마음을 내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자리잡아 별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엔 봉사회원을 모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큰 보람이 있었죠. 그 봉사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제 가슴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 더 덧붙인다. "봉사란 타인이라 매개체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하는데 봉사하는 이들 중 가끔은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이들을 도와준다는 야심(我相)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격하시키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봉사가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봉사는 참선이나 기도 못지 않게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이 속한 제주불교사회봉사회는 혼자서는 노인들의 목욕봉사, 장애인 후원금 전달 등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중 매주 수요일마다 제주시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점심공양 봉사는 2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은 대표적 활동이다. 김 회장 역시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한국어린이재단(現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제주지부 주부후원회 회장을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3년 동안 역임했다. 부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넣은 어머니가 돼주었다. 김 회장의 기억 속에 지금도 웃음이 남은 아이가 있다.

"보육원에 봉사 가면 모든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살갑게 달려들지요. 그 가운데도 늘 가슴에 파고 들며 안기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죠. 몇 년 동안 팔처럼 챙겨줬는데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갈 곳이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없었냐고 간청하길래 때마다 2층 방이 비어서 그러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보육원장이 콧속말로 "아이들을 쉽게 들이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순간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죠. 함께 지낸 2년 동안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친딸처럼 따랐어요. 그리고 시집 가기전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

“**제주도 최초 불자봉사회 회장 맡아 한센병 목욕 봉사 가장 기억에 남아 '봉사는 자신 발견하는 수행 방법'**”

2004년 덕희봉사회 초대 회장 김장김치 소외 이웃에게 나눔 실천 "나눔은 행복 두배, 봉사는 기쁨 두배"

창간 20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평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위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중앙총회회장 법조 부의장 대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부원장 범수	중앙총회위원 대광 민재 연아 도하 범조 원효 도이
감수위원장 민재	부원장 범조	총무부장 법조
연수위원장 범왕	부원장 원효	규정부장 혜정
포교위원장 도암	부원장 대원	교육부장 정범 재무부장 도하
호법위원장 법경	부원장 연아	사회부장 성화
교육위원장 원효	부원장 도이	홍보부장 우연 기획실장 대각
불교예술위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대원신평 불교(승가)대학학장 신평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중앙서실장 범수	중앙스님서방 소원 범수
부산교구총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총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총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전남교구총무원장	목포교구총무원장 범주	
전남광주교구총무원장 범정	인천교구총무원장	
충남교구총무원장	거제교구총무원장 도연	
강원교구총무원장 각오	경남동부교구부위원장 도각	
대원종법사 단장 수안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평연	
신평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권신평사

▶신규사찰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사금 모집합니다. 무료 숙박제공, 역사(철학, 사주관상, 심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총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평사 (원칙사) / 사단법인정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평사 한국역술철학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평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직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메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혜승**

종도일동
신도총연합회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각황사 / ☎ 053)325-0400

봉사자 '명예전당' 1호



2011년 12월 김문자 회장(사진 왼쪽)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하고있다.



2011년 5월 보건복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김문자 회장(맨 오른쪽)이 활짝 웃고 있다.



김문자 회장(맨 오른쪽)은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덕회봉사 회원들과 김장나눔 행사를 펼친다.

의 '어머니'라고 인사를 시키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정말 참 뿌듯하고 행복했죠. 오히려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구요.”

김 회장의 봉사행은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삼광사 덕회봉사회로 이어진다. 30여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현명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제주시 삼광사는 당시 제주 불자들에게 무주상 보시행으로 깊은 존경을 받던 임덕회 대화주 보살이 봉사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임덕회 보살이 입적하면서 그 역할이 주지 스님과 인연으로 김 회장에게 맡겨졌다. 2004년 '임덕회 보살'의 자비행을 잇자는데 뜻을 모아 '삼광사 덕회봉사회'가 창립되고 김 문자 회장은 현재까지 리더를 맡으며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덕회봉사회' 창립에 건인 역할

덕회봉사회는 창립 초창기 제주지역에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김장김치 자비나눔'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350포기에서 시작한 김장 나눔은 10년이 흐른 지난 2013년에는 10배에 달하는 3천여 포기 규모로 늘어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펼치고 있다.

수혜 단체들도 점차 늘어, 도내 각 복지시설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백혈병·소아암협회 등 다양해졌다. 행사 날은 수천명의 인파로 북적인다. 이제는 명실공히 삼광

사 단위 사회 행사를 넘어서 지역축제, 불교계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김장김치 자비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로 승화되면서 오히려 우리 봉사 회원들이 더욱 환희심으로 넘쳐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의 마음 가짐이 이러니 찾아 오시는 손님들도 모두 축제날 처럼 얼굴마다 웃음을 머금습니다. 모두가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덕회봉사회는 어느덧 10년 째를 맞으면서 새 변화를 모색중이다. 이제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봉사단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제 덕회봉사회는 봉사의 양보다 질을 고민할 시기”라며 “유형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매년 삼광사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 펼치

덕회봉사회가 김장김치 나눔 이외에도 그동안 삼광사 도량에 직접 파종한 콩을 수확, 메주를 쏘 간장과 된장 일부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한편 일부는 판매해 수익금을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온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또한 덕회봉사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직접 만든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자비의 도시락'이란 이름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봉사, 삼광사 주변 6개 마을 경로당 점심 공양 등 덕회봉사회의 자비행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행을 계속하고 싶다는 김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께 안고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며, 이 사회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도 강조한다.

덕회봉사회가 지난 2004년 창립 후 10여년 남짓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여 회원과 50여 후원자들이 활동하는 등 탄탄한 재정구조를 토대로 다양한 봉사를 펼 수 있는 밑거름도 깊은 불심은 물론 김 회장이 오랜 적십자 봉사활동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표창장만 20개가 넘는 정도인 포상경력도 그냥 이뤄진 게 아니었다.

인터뷰 끝무렵,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덕회봉사회원 한분이 한마디 거든다. “우리 김 회장님은 봉사를 통해 늘 자신을 비우고, 회원들에게 원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참불자의 길을 묵묵히 실천하며 일평생 봉사하며 자비행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요”라며 존경을 표한다. 글·사진·김주열·이병철(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어린이 불교합창단 오디션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다. 열심히 기도한 후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마음까지 생겨나 더없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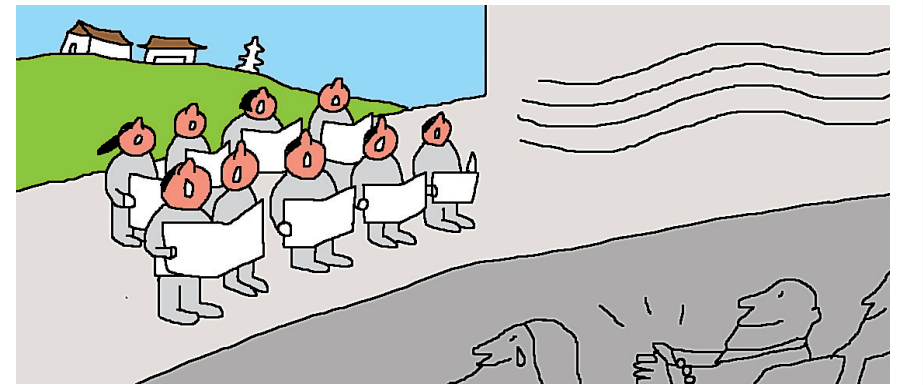
6년쯤 전이다. 어린이법회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불자들을 강하게 결속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창단했지만 어린이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합창단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들마저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며 참여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 돌리면서까지 단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해야만 했다. 겨우 18명이 모아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 단원모집에 힘들어하는 자모들에게 언젠가 우리합창단에 들어 오려면 오디션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입

로 하였다.

부처님오신 날 서귀포시연합창제는 리틀불다어린이합창단을 위한 공연 같았다는 격려의 말까지 들었다. 연합공연이후 또 입단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9월에 새로운 단원 입단은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현실적으로 50명 내외로 합창단을 유지 할 수밖에 없어서 십여명을 입단시켜야 하였는데 곱절이 넘는 어린이들이 신청하였던 것이다.

오디션을 통해 입단시키자는 치기어린 말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학년은 내년 봄에 입단시키는 것으로 무마시켰지만, 꼭 입단시키고자 열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서운한 말들을 전



그림·박구원

할 수 있는 날도 오리라며 위로했다.

어린이들의 열의와 지휘자의 열정에 힘을 입어 스무 명 겨우 넘는 단원으로 창단공연을 하였다. 언젠가 스스로 음치인 것 같다면 한사코 입단을 거부하다 입단한 학생의 자모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학교에서 장래의 꿈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합창단에 입단하여 연습하는 내용과 자신은 크면 꼭 합창단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주제로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어린불자들이 대한 애정과 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합창단에 더욱 열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정기공연을 2월로 옮겨 '스토리가 있는 합창·오세암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여 그야말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합창과 우리들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절묘하게 어울려졌다.

한 번의 성공적인 공연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열 명이 넘는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입단하였다. 그래서 입단 규정도 바꾸게 되었다. 그때까지 수시로 단원을 입단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년 2회 학기 시작 때만 입단받기

해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고민인 양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고민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고민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또다시 고민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들이 리틀불다합창단은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지만 고민의 현실 앞에서 괴로움은 똑 같았다. 자칫 입단시비가 자모단의 분열을 초래 할 뻔도 했기 때문이다.

몇 일전 지역의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너무나 잘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산악제단 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다. 사실 몇 년 전에 복지부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스스로 한참을 웃은 적이 있었다.


하나의 바람이 이토록 빨리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숨은 공로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든다. 우리 리틀 불자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행복한 고민이 밀려올까? 벌써 내년 봄이 무서워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국제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총의회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011-229-6061